

가자! 평등의 땅으로

역사의 문을 두드린 계절에 '경희'가
42세의 나이로 우뚝 서있는 오늘

폭압과 고통의 역사가, 노예의 굴렁쇠를 짊어진 노동자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청년학생이, 농민이 이 '터'를 일궈나갈 주인이다

거치른 들판, 험한 산맥, 거대한 자본과 지배계급의 메카니즘 안에서 우리는 너무 왜소하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고 스스로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고자 했을때 그 힘은 합성이고 전진이다

순박한 우리의 친구가 가진자들의 악세서리를 만들고, 가진자들에게 순종했을때는 불편함을 몰랐다. 그들이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았다. '임금'이라는 은혜

끝없는 노동의 소외와 고통과 폭압에 쓰러지면서 이제야 알았다.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당하던 터를 짊어졌고 평화와 평등이 있는 '터'를 건설할 것이다

터를 일궈 역사의 대해를,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건설자, 우리는 이제 직언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순과 고통을 극복해 나갈 탐방자. 바로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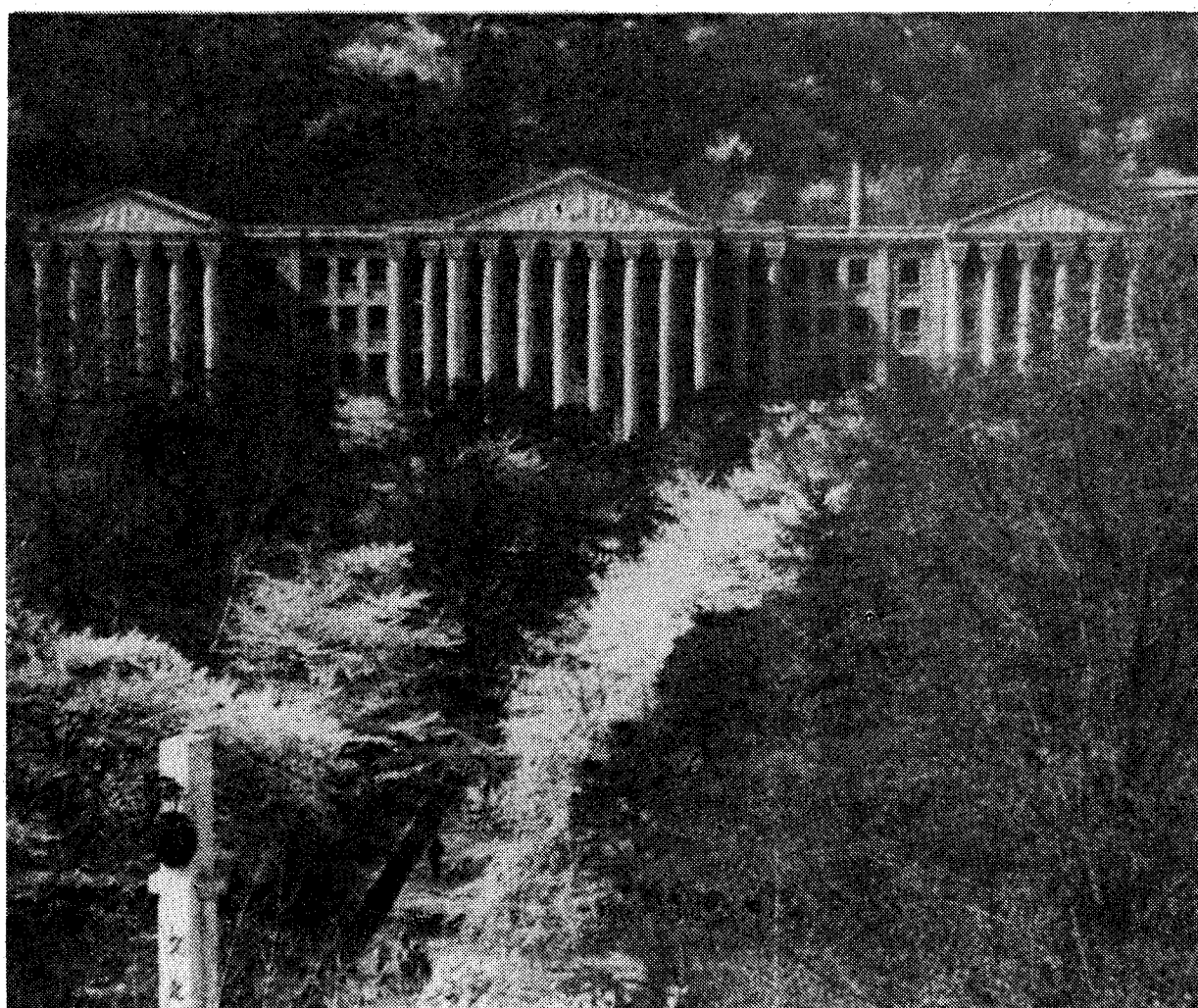
경희여! 일어서자. 42년의 흐름과 2만여의 의침으로 '터'를 일궈자. 우리가 살아나갈 이 터를

《대학주보사 기자일동》

심정수작 '터'

祝 개교 42주년

영광스런 조국의 미래
慶熙가 이끌고 있습니다



慶熙의 역사는
한마디로 역정과 격동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발전과 온갖 풍상을
함께하여온 慶熙는
올해로 개교42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장년 慶熙에는
조국미래에 대한 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경희의 학풍과 격정의 역사를 이끌어온 대학본부 '식조전' 모습